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심층종교와 신비주의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종교와 종교 간의 갈등, 그다음에
종교와 세속적인 세계관 사이의 갈등, 종교 내부의

같등이라고 하는 게 현대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됐다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같등이 실제로는

종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위안 때문에 더욱 증폭되고 강화됐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종교 간의

갈등들을 이해하는 또 다른 개념틀로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심층종교, 그리고 신비주의라고 하는

이 두 개념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심층종교라고 하는 거는 심층이라는 말 자체가

깊어진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대구가 되는 개념은
표층종교겠쥬. 이 얘기는 종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데 그 변화가 더욱더 깊은 방식으로,

더 바람직한 방식으로 변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전을 이해하는 것부터

종교적인 교리를 이해하고 그거를 실천하는 것, 그다음에
종교적인 의례라든지 상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종교생활을 해나가면 나갈수록 더욱더 깊은 차원으로 변모될 수 있고,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종교 활동의 목적, 혹은 신앙생활의 목적 역시도
표층적인 차원 즉, 표면적인 차원 혹은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내 자신이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는 것과 같은 기복적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기적인

목적이 강했다고 하면 이 종교생활이 심층적으로
변모하면서 자신의 존재, 그리고 세상의 존재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하고 더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과
더불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과 같은 더 유연하고

통합적인 종교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게 표층종교와 심층종교의 개념이겠습니다. 이 개념을 활용하게 되면

결국 종교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절대적 세계관의 충돌인데 이 절대적인 세계관의 충돌이

실제로는 표층적 차원의 종교 이해가 다른 종교의 또 표층적 차원의 종교 이해와 이렇게 충돌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종교생활이 더욱더 깊어지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종교 이해와

신앙생활이 더욱 유연하고 포용적이고 통합적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타 종교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종교적

세계관 혹은 신념 체계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훨씬 더 수용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본다고 하면 실제로

종교 간의 갈등, 혹은 종교와 세속적 세계관의 갈등, 그리고 종교 내부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과 이런 식으로

불변하는 종교생활을 전제로 한 표층적 믿음 체계 간의 갈등이라고 저희가 달리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표층과 심층의 개념을 저희가 활용하게 되면 이제 신비주의라고 하는 종교사의 또 다른

현상들과 깊은 연관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오해가 되게

많습시다만, 신비주의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특정한 방식의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궁극적 본성,

혹은 궁극적 실체, 혹은 신이라고도 표현됩니다마는, 이 존재의 근원 혹은 근거와 하나가 됨으로써 그 실체성

혹은 실존성, 혹은 본성, 혹은 궁극성을 알게 되는 체험을 인간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는

종교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비주의라는 이름의 종교는 없고요. 이 종교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여러 가지 종교 전통들이 서로 만나는 동서양이 교류하는 과정에서 이것들을 비교하고, 이것 과정에서

보편성을 이해하는 개념으로 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신비주의라는 개념 역시도 소위

신비적 합일 체험이라고 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신비주의적 경향성을 띠는 종교 전통 내부의 일정한

흐름들을 서로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비교의 개념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신비주의는 그런데 영어로 **mysticism**이라고 표현되는데요. 서구사, 서구 종교사에서 등장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거의 원초가 되는 개념은 희랍의 그리스의 신비 종교, **mystery cult**라고 하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원래 **mystery**라는 말 자체는 희랍어 무오라고 하는 눈이나 입 따위를 가리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신비주의 종교에 입문된 사람들이 엄격한 윤리적 혹은 지성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입문시켰고,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방식의 종교적인 통찰들을 얻게 되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전해주고, 이 가르침들을

입문되지 않은 **mystery cult** 바깥사람들한테는 철저하게 비밀만 엄수하라는 의미에서 무오라는 희랍어에서

mystery cult가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그리스 로마의 미트라신을 모시는 미트라 컬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신비주의적 종교 전통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랍과 로마의 신비주의 종교 전통은

플라톤 철학에 아주 크게 영향을 주었고, 플라톤 철학을 받아들인 플로티누스와 같은 사람들, 혹은 이후에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교의 소위 신비주의적 전통이나 흐름들의

원조가 되게 됩니다. 신비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그러니까 신비주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궁극적 실재와 인간이 하나 될 수 있는 소위 신비적 합일 체험이라고 하는 사건이 가장 중심적이고,

그다음에 신비적 합일 체험들을 갖기 위해서 인간의 의식들을 변화시키는 소위 수행, 우리가 명상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식 변형의 수단들이나 방법들을 통해서 신비적 합일 체험을 얻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얻어진 신비적 통찰들을 언어로서 혹은 철학적 체계로서 설명하고 지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상

즉, 체험, 수행, 사상과 같은 3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명상과 같은 것은 신비주의적

종교 전통은 빠짐없이 가지고 있는 인간 내면에 깊숙이 들어가서 자신의 참된 본성을 알아차리게 되는 사건을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들인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명상과 같은 수행을 통해서 내면에 깊숙이

들어간다고 하는 말 자체에 이미 심층이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신비주의

종교 전통은 어떤 의미에서 모든 종교 전통들에 골고루 신비주의적 경향성들을 가지고 있는 흐름들을

얘기하는데 이 흐름들 간에는 굉장히 큰 유사성 혹은 공유 가능성, 혹은 소통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예컨대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기독교 전통의 신비주의는 유대교 신비주의 전통 혹은 이슬람의 신비주의 전통과

그 교리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쉽게 소통하고 교류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현대에 들어서 신비주의적 종교 전통 혹은 신비주의적 흐름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는 이유가 소위 제도화된 종교 사이의 갈등이라든지 충돌과 같은 것들을 심층종교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서로들 깊게 이해할뿐더러 그리고 이게 의식 변형의 체험 즉, 신비적 합일 체험을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수행 방식이 신비주의적 종교 전통에는 대단히 유사한 방식으로 폭넓게 차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심층종교 혹은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종교가 보여주는 여러 차원의

갈등들을 어떤 식으로든 통합하고 가로지르게 만드는
중요한 매개 고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관점에서

현대의 종교화, 그리고 현대의 종교 이해에 대단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심층종교와 신비주의의
두 번째 파트로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과 심층심리학

혹은 심층종교라고 하는 것을 개인의 발달, 개인의 의식
발달이라는 발달심리학과 연계시켜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